

거래소 파산하면 내 코인은?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흔히들 언급하는 코인은 이제 엄연한 투자 대상이 됐다. 그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두고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형사법상 몰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그 이용자들은 ‘코인의 소유자’로서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있던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개인이 직접 전자지갑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 사람이 거래소를 통해 쉽게 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다.

만일 이용자가 ‘코인의 소유자’라면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던 코인은 처분 대상이 되는 파산재단(채무자인 거래소의 재산)

에 귀속되지 않고 이용자가 코인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파산제도에서는 ‘환취권’이라고 한다. 반면 이용자가 소유자가 아닌 ‘가상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면 일단 코인 자체는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처분되고, 이용자는 채권자로서 채권의 일부를 파산 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래소 이용자들은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뿐 코인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왜 그런가? 보통 거래소의 약관에는 ‘회사가 가상자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종종 삽입돼 있고, 실제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용자별로 그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다. 즉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이 전혀 분리되지 않은 채 통합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코인 자체의 소유 및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관리,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키를 거래소 운영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코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의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있다

면 법원 또한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그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다. 따라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가상자산의 가치가 급등한다면 회생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파산선고 시를 기준으로 계산했던 채권자들의 채권액 역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것이고, 그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액수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거래소가 가진 코인 가격도 덩달아 높아지므로 거래소의 영업 계속을 검토해 파산때보다는 지속적으

로 더 많은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이 실질적으로 가지는 경제적 가치와 파급력에 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판단은 아직 모든 면이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까지는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게 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용자가 갖는 지위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판단을 면밀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체감 할 수 없는 ‘물가 안정’



기지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며칠 전 장을 보다가 파스타 소스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8300원이던 제품이 1만3900원까지 올라 있었다. 계산기를 꺼낼 필요도 없었다. 단순한 인상이라고 보기엔 폭이 컸다. 체감으로는 가격이 ‘뛰었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불과 몇 개월 사이 67% 상승. 숫자를 따지기 전에 당혹감이 먼저 들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1월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2.4%다. 지난 8월 1.7%에서 9월 2.1%로 오른 뒤, 두 달 연속 2.4% 수준을 유지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24년 7월(2.6%)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다.

품목별로 들여다보면 체감은 더 분명해진다. 요리에 빠지지 않는 마늘 가격은 전년 대비 10.6% 올랐고, 각종 양념소스도 12.1% 상승했다. 달걀 가격 역시 7.3% 뛰었다.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물가 부담이 줄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가격 인상이 한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번 오른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원가 부담을 이유로 인상된 가격은 어느새 ‘정상화’라는 이름을 달고 굳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르는 구간만 빠르게 지나가고, 내려오는 구간은 체감하기 어렵다.

최근 여러기관은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최대 2.1% 까지 전망했다. 민간소비 회복이 그 근거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이 현실에서도 체감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소비의 중심

에 있는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지갑을 쉽게 열기는 어렵다.

특히 생활물가는 소비 심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한다. 성장률 전망 수치가 아무리 좋아져도,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오지 않는 한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고 느끼기는 힘들다. 소비가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는 가격 신호가 먼저 필요하다.

결국 성장과 소비 회복을 말하기 전에 짚어야 할 것은 생활물가다. 파스타 소스 가격표 앞에서 멈춰 서게 만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민간소비 회복은 전망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체감되지 않는 성장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생활물가 관리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29일 (음 11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집에서 음식쓰레기를 발취하여 즐겁다. 48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퍼하라. 60년생 신세를 졌던 사람이 고맙게 신세를 갚으려 온다. 72년생 오늘 회의는 뜻대로 찬성표가 많을 터이니 겸손. 84년생 건강은 재물만큼 축복.



37년생 다정다감(多情多感)도 병. 49년생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61년생 상대의 단점을 캐내지 마라. 73년생 오늘 하늘에서 떨어진 횡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한다. 85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상반되게 배신한다.



38년생 인생에 휴식이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50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밀고 나가라. 62년생 자력자식으로 고집 피우지 않도록. 74년생 닥쳐올 재난을 미리 경계하자. 86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내일의 평온으로 가는 길이 된다.



39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 51년생 천재라도 노력이 있어야 이어진다. 63년생 음주와 먹는 것에 유의하는 날. 75년생 이제 시작된 사회생활이니 미래를 재점검하자. 87년생 건조하여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도 우물.



40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진행. 52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4년생 배려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76년생 풍요롭기를 원하면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할 터. 88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41년생 축(畜)시에 운전 주의. 53년생 일이 성과를 내니 명예가 높아진다. 65년생 다툼이 일어나니 미리 자중하여 구설 주의. 77년생 불확실한 미래지만 절음은 가치가 엄청나다. 89년생 이성에게 바라다보면 가정불화가 발생.



42년생 병이 왔으니 약도 주저하지 인생사 두고 도는 것. 54년생 학문의 길은 다양하나 공든 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66년생 이사계획은 다음 날에. 78년생 아직보다는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90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



43년생 삼재이니 재물 관련 일은 지장 기도를 해보는 것도. 55년생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 67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 79년생 앞날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보자. 91년생 가족의 협조로 집안일이 잘 풀린다.



44년생 집안에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만들어지는 경사날. 56년생 동료와의 우정이 여러모로 도움 된다. 68년생 사랑이 찾아와 가슴이 벅차다. 80년생 구슬을 꿰듯이 시작하는 시점을 잘 찾자. 92년생 마음은 불편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45년생 줄이 길어 기다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57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치지 주의. 69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81년생 오후에 음주가 낀 망신살에 주의. 93년생 반려견은 기쁨을 같이하니 청결하고 건강하게 키우자.



46년생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발생. 58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70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82년생 언덕이 변하여 골짜기가 되듯 변하고 변하는 게 인생사이니. 94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47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가 있다. 59년생 말천이 많으니 장사도 큰 이익. 71년생 지치가 쉬운 날이나 의외의 곳에서 소득이 생긴다. 83년생 학식이 풍부해 직장에서 늘 대우를 받는다. 95년생 사람이던 동식물이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김상회의四季 생명의 물

물은 생명이다.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인체의 70%가 수분인 것은 그만큼 물이 신진대사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임을 말해 준다. 신비하게도 우리 인간이 사는 지구도 물이 70%를 차지한다. 5대양 6대주가 지구의 기본 구성인데, 이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 뿐과 함께 강이나 호수 등등의 물의 양이 지구 질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몸이 그 삶의 터전인 지구를 닮아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인체가 소우주임을 확인한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진작에 통찰하여 하늘과 해와 달, 지수화풍의 작용과 조화를 인간의 운명과 삶에 적용시켜 미래를 예측하는 지혜를 계발해왔다, 그것이 주역이고 음양오행론이다. 무엇보다 물이 어머니의 자궁과 난자를 수(水) 오행으로 정의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생명의 정수가 되는 아버지의 정은 화(火) 오행으로 정의하는데, 화가 수를 만나면 화극수 하여 물리적으로는 반대 성향일 것 같지만 극은 극끼리 통한다고 하듯 정반합 작용으로 서로가 합하여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일(日)로서 태양이요, 어머니는 월(月)로서 달이니, 해의 뜨거운 에너지와 달의 서늘한 기운이 키우고 품어 새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것이다. 반대되는 기운이 서로 음으로 양으로 작용하며 온전한 소우주가 탄생하여 우주의 구성원이 된다. 기독교 종파의 하나인 침례교에서는 물로 세례를 준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예 강물 앞은 쪽에서 사제가 세례자의 머리를 물에 담갔다가 들게 한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나듯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도 물을 통해 태어나듯 정신적으로도 물은 생명이자 태어남의 상징이다. 그러니 물을 성수로 하여 몸에 뿌리면 영혼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색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2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